

생산 공정을 효율화하는 솔루션

2007년 1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OS로 윈도 비스타가 발매되었다. 비스타 환경에서는 표준의 폰트와 문자가 미리 세트되어서 이전의 JIS X0208:1990을 토대로 하는 JIS X 0213:2004 규격에서 변경되었다.

또 새 디자인의 메이리오가 탑재되었다. 이전, 시스템 폰트였던 MS 명조와 고딕은 신 버전이 되었고 문자 세트, 글자체의 변경이 반영되었다.

JIS X 0213:2004는 새로운 제3, 제4 수준의 한자를 확장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국내 지침인 인쇄표준자체에 기초해 예시자체를 변경한 것이다. 제3, 제4수준의 한자를 확장하는 것으로 인명용 한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윈도비스타 이후의 다른 글자체나 어플리케이션은 이전의 외자나 이체자 등을 지원되지 않던 한자의 상당한 부분을 표준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케 되었다. 그러나 구 시스템과 신시스템의 혼재환경이나 타사 OS 등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는 호환성 등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인쇄업계는 문자를 다루는 전문가 입장에서 일반기업 등 사용자들에게 조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도비시스템즈는 이전부터 어도비일본1-5이라는 문자 세트에 대해 JIS X 0213:2000과 인쇄표준자체의 문자를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원해왔다. JIS X0213:2000에 완전히 대응하는 것은 어도비일본 1-6이다. 모리사와는 새로운 어도비 저팬 1-6 문자 세트에

대응하는 오픈타입 프로폰트(2만3058문자), 10가지 서체를 발표했다. 또 비스타에 대응하기 위해 모리사와에서는 류밍·신코 등 10가지 서체의 비스타 문자 세트를 발표했으며 이와타에서도 비스타 문자세트 표준의 TrueType 제품의 홍보행사를 가졌다.

어도비 DTP소프트웨어 최신동향

어도비의 DTP·웹·비디오관련 소프트웨어가 2007년 5월에 발표됐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슈트 3(이하 어도비 CS3)으로 불려졌다. 어도비 CS3에는 인쇄는 물론 웹, 핸드폰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어도비 CS3디자인', 웹디자인 개발을 염두에 둔 '어도비 CS3 Web' 비디오 관련 차세대 프로덕션 툴인 '어도비 CS3 프로덕션 프리미엄'는 종합 패키지로 '어도비 CS마스터 컬렉션' 등 6종류의 제품이 있다. 이외에도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드림위버, 플래시,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등 12종류의 단품 어플리케이션의 최신 버전이 CS3로 함께 발표되었다.

어도비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의 작동환경으로 최신 인텔 프로세스가 탑재된 Mac OS X Leopard 10.5를 권장하며 윈도 비스타와 견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작업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제품들은 어도비와 마이크로미디어 통합 후에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디자인, 웹, 비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의 디자인 제작을 통합 지원하는 제품군으로 묶었다. 사용

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많은 신기종을 탑재해,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의 송수신 등, 조작성 등을 개선시켰다. 예를 들면, 인디자인 CS3로 레이아웃한 결과를 XTHML에 출력하거나, 드림위버 CS3로 읽거나 하는 등 용이한 인쇄와 웹상의 레이아웃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 이전의 모바일콘텐츠제작은 PC상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실제의 디바이스에 전송하거나 테스트할 필요가 있었다. 각 제품에 동봉되는 새 어플리케이션의 Device Central에 따라 PC상에서 각 모바일디바이스의 동작 프리뷰와 테스트를 용이하게 작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제작공정의 효율화를 크게 진전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출판·인쇄나 광고 각 분야를 망라한 출판물이 웹에서 정보발신과 관련되어 다뤄지고 있다. 그 때문에 인쇄디자인, 웹디자인, 콘텐츠 제작을 관련시켜, 디지털·데이터의 활용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이 같은 툴을 활용하는 지식과 기능의 향상, 인재육성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의 DTP 소프트웨어

일본에서는 'QuarkXPress 6.5 일본어판'이 출시됐다. 동작환경은 Mac OS X, 윈도2000/XP 등이며 복수의 인생용 도큐먼트, HTML 도큐먼트를 총괄해서 1개의 파일로 취급하는 기능 등 크로스미디어 퍼블릭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OpenType 폰트의 다운로드에 대응한다. 이밖에 Excel파일을 지원하는 등 표 그리기 성능을 강화시켰다.

PDF/X의 이용동향과 어도비 아크로벳

PDF/X는 인쇄 데이터 입고의 신뢰성향상을 위해 PDF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ISO규격으로 맞췄다. 예를 들면, PDF/X-1a에는 폰트를 CMYK컬러가 필수이기 때문에 폰트를 내장했다. 이는 PDF/X-1a에 있는 폰트의 유무와 색공간의 틀림에 따른 입고문제의 발생건수를 크게 낮추었다. 일본국내에는 인쇄회사가 입고 데이터를 수정하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파일로 입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의 버전 등, OS, 폰트 환경 등,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문제의 발생이 적지 않다. PDF/X-1a에 따른 데이터 입고라면 어플리케이션이나 OS, 폰트 환경에 따른 문제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

PDF생성 툴의 어도비 아크로벳8.0프로페셔널에는 인쇄와 관련된 기능이 '인쇄공정 툴바'로 해서 정리되어 있고 조작도 이해하기 쉽다. 잉크 사용총량, RGB화상, 오버 프린트 등을 검출하는 출력프리뷰 기능 등 헤어라인 수정, 탑재되는 폰트를 추가하는 기능이 갖춰져 있다. 또 문제가 있는 파일 등을 검출하거나 비주얼에 표시되는 PDF/X 작성을 누구라도 가능하고 수정작업의 순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서서히 침투하는 XML 퍼블리싱

최근 들어 서서히 XML퍼블리싱이 적용되는 분야가 명확해지고 있다.

제품매뉴얼 제작에는 Word데이터나 텍스트원고를 토대로 DTP레이아웃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정지에 교정표시를 하거나, DTP오퍼레이터가 수정한 것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작업과 같이 비효율적인 점이 있기도 하다. 또, 과거의 기술내용을 유용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DTP데이터의 유용, 변경이 곤란하기 때문에 작업자에 의한 실수가 빈번하다.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면, XML데이터로서 보존하는 것이다. 보존된 데이터로부터 인쇄물 제작 등의 정보발신을 행하는 XML퍼블리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러저런 효과를 기대하고 실현할 수 있다. XML를 교정, 데이터의 일원관리가 가능하다. 교정 완료 후에는 일괄자동조판이나 목차, 색인을 자동생성 한다. 과거의 데이터의 유용 또는 갱신도 용이하며 인쇄물뿐만 아니라 Web사이트의 정보발신 등도 신속히 할 수 있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과 OS에 의존한 데이터 보관에서 폐기까지 장래적인 활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처럼, 데이터구조를 정의하는 일에 효율적인 퍼블리싱이 실현되는 분야로서 법령집이나 용어집, 학습교재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